

전간기 유럽의 동아시아 인식과 서술*

— 지정학적 구상을 중심으로 —

이진일**

- I. 문제의 제기
- II. ‘정치지리학’에서 ‘지정학’으로
- III. 동아시아적 계기들
- IV. 광역체제의 구상과 동아시아
- V. 맺음말: 공간을 역사 서술에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

• 국문초록

일반적 선입견과는 달리 지정학은 나치 독일이나 일본 군국주의가 만든 것도 그들에 국한된 현상도 아니다. 지정학은 그 이념에서 랫젤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출발한다. 그는 지구를 대륙과 해양으로 구분하면서, 이들이 갖는 지리적 요소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지질학적 측면이 갖는 의미를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명확한 자연법칙으로 받아들여 강조한 것이었다. 맥킨더 (Halford Mackinder, 1861-1947)와 마한 (Alfred Thayer Mahan, 1840-1914)으로 대표되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간의 힘의 충돌이론은 비록 식민제국주의라는 낡은 표제 하에 이미 철지난 담론들로 치부되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B8A01055234)

**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교수.

기도 했으나, 냉전이 종식되고 대륙과 대륙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밀착하게 된 오늘날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

지정학을 공간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하는 학문이라 할 때, 역사적으로 그것은 두 가지 차원을 지녔다. 하나는 현실정치적 관계를 설명할 학문적 분석도구로서의 사용이었고, 다른 한편 이를 넘어 정치적 행위를 이끌어가는 공격적 도구로 이해되었다. 그럼에도 이 새로운 학문이 공간을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 즉 한 국가 내의 경제, 인구, 문화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분석도구로서의 미흡함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 주제어

지정학, 맥킨더, 랫젤, 마한, 하우스호퍼, 슈미트, 대공간, 동아시아, 대륙블록, 공간

I. 문제의 제기

21 세기가 시작되는 벽두, 미국의 역사학자 찰스 마이어 (Charles S. Maier)는 지금까지의 전통적 시대구분을 통해 20세기의 특징을 추출해 내는 방식에서 벗어나, ‘영토성 원칙’ (Principle of Territoriality)이라는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세계를 다시 볼 것을 제안한 바 있다.¹⁾ 그에 따르면 187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100년간의 세계는 문화, 경제, 정치, 기술 등 모든 면에서 ‘공간’ (Raum/space)에 대한 국가의 컨트롤을 사그나 행위의 중심점에 두고 진행된 시기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가장 중요한 근거로 19세기 말경부터 시작된 지정학적 모델과 이론들의 발전, 그리고 전지구적 공간을 구체적 이해관계의 대상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경향들을 언급한다.

실제로 19세기가 거의 끝날 무렵 서구 제국주의 세계의 아시아에 대한 시각은 변화되었다. 중국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자체가 일본과 태평양 연안 주변국가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동하며, 해양과 대륙, 그 주변의 연안지역(rimland), 이들 간의 연결성 등 다양한 지정학적 담론들이 형성되어 기존의 정치적 혹은 지리적 연구들을 대체하게 된다. 이제 새롭게 세상에서 발견될 땅은 존재하지 않으며, 문제는 누가 누구와 협력하여 ‘지구라는 바다’에 떠 있는 섬들인 대륙을 지배하는가에 대한 각축이 시작된 것이다. 동시에 이런 과정은 영국의 제국주의, 독일의 ‘생존공간’(Lebensraum) 정책, 러시아의 세계혁명 이데올로기, 미국의 문호개방정책, 일본의 군국주의 등 다양한 세계정책들의 충돌로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 선입견과는 달리 지정학은 나치 독일이나 일본 군국주의가 만든 것도 그들에 국한된 현상도 아니었다.²⁾ 영국이나 미국 등 서구 열강

1) Charles S. Maier, “Consigning the 20th Century to History: Alternate Narratives for the Modern Era”,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105, No. 3, 2000, pp.807~831. 이진일, 「주권-영토-경계: 역사의 공간적 차원」, 『사람』 35, 2010, 400-422쪽.

이 발전시킨 정치지리학에서도 동일하게 힘, 예외주의, 세력권 의식, 영토의 절대성 등을 추구의 절대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들 세력들 간에는 사실상 별 차이가 없었다.

독일 지정학(Geopolitik)³⁾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그 이론적 전성기를 누리면서 영토적 팽창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로 동원되었으며, 1933년 히틀러의 집권 이후에도 내용이나 인적 구성에서 아무 단절 없이 지속되면서 동유럽으로의 팽창과 ‘세계정책’(Weltpolitik)의 구체적 실천도 구로 사용되었다. 동아시아에서의 이 기간은 중국과 일본, 러시아가 서구 제국주의 세력과 맞서 싸우면서 정치적, 군사적 각축을 벌이던 시기이기도 하다.

맥킨더 (Halford Mackinder, 1861-1947)와 마한 (Alfred Thayer Mahan, 1840-1914)으로 대표되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간의 힘의 충돌이론은 비록 식민제국주의라는 낡은 표제 하에 이미 철지난 담론들로 치부되기도 했으나, 냉전이 종식되고 대륙과 대륙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밀착하게 된 오늘날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⁴⁾ ‘대륙세력에 대항하는 해양세력’이라는 맥킨더의 세계모델, 그리고 소위 ‘심장국가’들의 대서양

-
- 2) 그럼에도 지정학이 일반적으로 나치학문 정도로 인식이 굳어진 경과에는 2차대전 중 지정학을 나치학문으로 선전하고, 이후 냉전기에는 소련과의 관련성 속에 냉전전략의 하나로 취급해 온 미국의 영향이 크다. Edmund A. Walsh, *Total Power: A Footnote to History*, New York: Doubleday, 1948; Hans W. Weigert et al. eds., *New Compass of the World: A Symposium on Political Geography*, New York: Macmillan Company, 1944.
 - 3) 일반적으로 지정학을 영미권에서도 별 설명없이 ‘Geopolitik’으로 표기함으로써 학문의 독일적 기원과 특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 4) Mannfred Görtemaker, “Politischer Zeitgeist und Geopolitik - Über die zeitbedingten Voraussetzungen anwendungsorientierter Wissenschaft”, Irene Diekmann u.a. ed., *Geopolitik: Grenzgänge im Zeitgeist*, Potsdam: Verlag für Berlin-Brandenburg, 2000, pp.15~36; Gerhard Sandner, “Renaissance des geopolitischen Denkens in der Geographie? Versuchungen, Herausforderungen, Perspektiven”, *Geopolitische Zeitschrift*, 81, 1993, pp.248~252; 콜린 플린트, 『지정학이란 무엇인가』, 길, 2007; 브레진스키, 『거대한 체스판: 21세기 미국의 세계전략과 유라시아』, 삼인, 2000.

연안으로 팽창에 대한 ‘해양국가’들의 불안은 냉전을 통한 이데올로기적 변형을 거치면서 표현만 바뀐 채 서구 지정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전파되었다. 한편에는 낮설고 폐쇄적이며 위협적인 대륙세력이 존재하고, 그 반대편에는 개방적이고 억압적이지 않으며, 리버럴한 ‘해양세력’이 존재한다는 이데올로기적 이분법이 그것이다. 문제는 20세기 전반기 지정학자들이 살았던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리적 결정론이 21세기에도 여전히 그 힘을 유지하며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오늘날의 서구중심적 세계체제가 진행되고 발전하는 방식이 여전히 100년 전의 지정학적 가치관과 사교 안에서 적용되고 작동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정학 이견 정치지리학이건 지리학적 이해와 시대사적 이해가 함께 기반해야 하는 연구이다. 또 두 학문 모두 개별국가의 국경을 넘는 범주적 특성을 갖고 있는 글로벌 학문이면서, 동시에 자국의 현실 정치에 직접적으로 응용하고 정당화의 논리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그 발전이 현재 진행형인 학문이기도 하다.

제국주의의 동아시아 정책과 관련해 국제관계적, 혹은 문화적 시각에서의 접근은 이미 기존에 여럿 있어왔다.⁵⁾ 본 글은 20세기 전반기 서구 제국주의 세력이 구성했던 동아시아에 대한 지정학적 인식의 분석과 서술을 목표로 한다. 19세기 말 이후 진행된 유럽인의 동아시아에 대한 제국주의적 시각을 지정학적 인식이라는 거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유럽의 지정학자들이 동아시아에 대해 보였던 관심의 배경과 그들이 구상했던 세계질서 속에서 동아시아가 차지했던 위상을 확인해 보면서, 역사서술에서 지정학적 시각이라는 공간적 접근방식의 가능성을 확인해보고자 하는 것이 본 발표의 주된 문제의식이다.

5) 이근욱 외, 『제국주의 유산과 동아시아』, 동북아역사재단, 2014; 이영석, 『영국 제국의 초상』, 푸른역사, 2009, 302~339쪽; 박지향, 『일그러진 근대』, 푸른역사, 2003; 전진성, 『상상의 아테네. 베를린·도쿄·서울』, 천년의 상상, 2015.

II. ‘정치지리학’에서 ‘지정학’으로

‘지정학’(geopolitics/Geopolitik)만큼 많은 오해와 불명확함이 오래 유지된 학문분야도 드물다. 19세기의 마지막 몇 년의 시간 속에서 ‘지정학’이라는 용어는 태어났지만, 정치지리학 (political geography/politische Geographic)과 개념적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학자마다 학문적 정의를 달리 내리는데에 원인이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지리학과 정치학이라는 사뭇 다른 두 학문을 이론적으로 조합하면서 다루는 사람에 따라 자의적으로 현실관계에 적용 혹은 남용해 왔음에 원인이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이라는 표현 또한 별 고려없이 얼마나 관용적으로 써 왔던가.

지리학이 지표변화를 통해 인간을 해명하는 것을 학문적 목적으로 한다면, 정치지리학이란 “인간의 국가형성의 형식이나 변화, 혹은 인간의 역사적 운명 등의 안에 있는 지리적인 것들에 대한 학문”⁶⁾이다. 이에 반해 지정학적 접근이란 공간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역사적 발전과 그것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지만, 동시에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각 세력 간의 경쟁의 측면이 학문적 구성에서 결정적 계기를 구성한다. 지정학에 있어 예견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지정학이 ‘지표공간’에 있어서의 권력의 유지, 변형, 획득을 나타내는 나침반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치사상에서 공간을 하나의 불가결한 단위로 삼은 것은 이미 고대부터의 긴 전통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지정학적 사고의 범주에 집어넣지 않는 이유는, 과거의 지리적 사고는 풍경, 기후, 지표, 식생 등의 지리적 요소들이 특정한 정부형태를 구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정도로만 평가했기 때문이다. 랫젤 (Friedrich Ratzel)과 켈렌 (Rudolf Kjellen)

6) 이강원, 「근현대 지리학의 아시아 연구 경향과 새로운 의제들」, 『아시아리뷰』, 2011. 1., 111쪽; Georg Wegener, *Die geographischen Ursachen des Weltkrieges - Ein Beitrag zur Schuldfrage*, Berlin: Siegismund, 1920, p.17.

이후의 사고에서는 환경이 정치적 형태에 미치는 영향력과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지리와 지리적 위상이 어떻게 전지구적 권력형태를 구성하며, 지리를 통해 어떻게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권력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⁷⁾

그렇다면 이런 지정학적 의식의 변화는 어디에서 왔는가? 물론 지정학이 나치즘의 등장이나 일본 군국주의의 확장과정에서 결정적 기여를 했지만, 이들이 지정학적 사고로의 변화를 만드는 직접적 계기를 만들어 낸 것은 아니었다. 이미 19세기 후반 전지구화의 첫 파도를 경험하면서 지리와 공간에 대한 관심은 지정학적 사고를 통해 근본적 변화를 겪게 되는데, 맥킨더, 터너 (Frederick Jackson Turner), 폴 비달 드 라 블랑셰 (Paul Vidal de La Blanche) 등 영국, 미국, 프랑스의 정치지리학자들은 “지리학, 통계학, 인류학, 사회학, 역사학, 심리학, 생물학, 사회다윈주의 등등에서 나온 요소들로부터 소위 자국의 ‘건강한’ 민족적 제국주의를 뒷받침할 이론들을 개발하였다. 즉 정치지리학은 그 시작에서부터 “제국주의의 동반 학문이며 동시에 선도학문”⁸⁾이 된다.

지정학이라는 새로운 과학을 만들어 낸 배경에는 세계사적 균형변화가 있었다. 유럽 내 국가들 안에서 지리정치적 위기와 지각변화가 예상되었는데, 이런 배경에는 통일 독일의 급속한 경제적 발전과 적극적으로 전환한 해외팽창 욕구,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기존 열강들의 대응방식 때문이었다. 1870년의 통일 이후 독일은 전 유럽을 하나의 대공간경제권 (Grossraumwirtschaft)이라는 개념으로 상정한 후, 그 속에서 동부유럽과 남부유럽에게 농산물과 원자재를 제공하는 역할을 부여한다. 그 이론적 배경에는 ‘독일 국민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프란츠 리스트 (Franz List)가 있었다.⁹⁾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해 왔던 영국의 장악력은 19세기

7) Robert Meyer, *Europa zwischen Land und Meer*, Göttingen: V&R Unipress, 2014, p.89.

8) Dirk van Laak, *Über alles in der Welt*, München: C.H. Beck, 2005, pp.75-76.

9) Friedrich List, *Das nationale System der politischen Ökonomie*, Stuttgart, Cotta, 1841/1971.

말 이후 분명하게 쇠약해지고 있었다. 이런 지각변동 속에서 만일 유라시아 대륙이 독일이나 러시아에 의해 지배된다면, 혹은 아시아가 일본이나 중국에 의해 지배된다면, 이는 기존 제국주의 세력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고, 더욱이 독일과 소련이, 나아가 이들과 일본까지 결합하게 된다면 이들이야말로 양 반구에서 가장 큰 세력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한다.

더욱이 통신수단과 교통수단의 발달이 공간적 간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져다 주었고, 역설적이게도 “공간의식의 위기”가 새로운 공간관의 확대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¹⁰⁾ 당대의 지식인들은 지정학을 새로운 세기를 맞아 점점 노골화되는 제국주의적 각축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학문으로 받아들였다.

지정학은 그 이념에서 랏젤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출발한다. 그는 ‘지정학의 아버지’로 불리울만큼 지리정치적 이론에 근간을 세운 지리학자였다. 우선 정치의 토지와 결부성(Erdgebundenheit)에 대한 보편적 강조에서 시작하였다. 지구를 대륙과 해양으로 구분하면서, 이들이 갖는 지리적 요소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지질학적 측면이 갖는 의미를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명확한 자연법칙으로 받아들여 강조한 것이었다.¹¹⁾ 그는 공간이 행위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며, 그것이 어느 정도의 자율적 법칙성을 갖고 작용한다고 보았다. 이런 자연적 팽창주의에 적응하는 정치만이 기존의 국경을 넘어설 수 있고 시대의

10) 스티븐 켄,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 1880-1918』, 휴머니스트, 2004. 특히 541~576쪽 (“당시 새로 부상한 사회과학의 다른 갈래인 지정학은 거리감각에 대한 담론에 언어를 제공해주었다 …… 지정학은 거리만 연구하는 학문은 아니었다. 지정학은 19세기 후반 제국의 엄청난 팽창과 함께 발전했고, 특히 국가의 크기, 위치, 국가 간의 거리가 그들의 정치와 역사를 형성한 방식에 관심을 기울였다.”)

11) Gerhard Sandner, “Deterministische Wurzeln und funktionaler Einsatz des ‘Geo’ in Geopolitik”, *WeltTrends*, 2, 1994. 4., pp.8~20.; Robert Meyer, op. cit., p.50 이하; Franz Neumann, *Behemoth. Struktur und Praxis des Nationalsozialismus 1933-44*, Frankfurt/M.: Fischer, 1942/1993, p.176 이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¹²⁾ 그는 철저히 진화론을 신봉하는 다윈주의자였다.

랏젤은 기본적으로 국제정치를 국가 간의 공간/영토를 두고 벌이는 상호투쟁으로 보았으며, 사회다윈주의적 사고를 세계관의 기반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는 다시금 그가 고안해 낸 ‘생존공간’(Lebensraum) 개념과 연결된다.¹³⁾ 모든 지구상의 종들이 생존공간의 획득을 위해 싸우고 있으며, 그런 국가를 생물학적 개체로 보는 시각이 그것이었다.¹⁴⁾ 즉 자연적, 생물학적 법칙들을 그대로 세계사의 형성에서도 넘겨받을 수 있어서, 유럽의 지리정치학 또한 이런 생물학적 이론에 바탕한 국가형성과 발전의 틀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인류학적 문명발전론에 기대어 성숙한 문화는 미숙한 문화에 비해 더 큰 공간을 필요로 하며,¹⁵⁾ 그런 의미에서 그에게 국가란 “영토에 기반을 둔 유기체”(bodenständiger Organismus)였다.¹⁶⁾

이런 랏젤의 국가에 대한 자연법칙의 적용을 조직적으로 발전시키고 정치적 의미를 더함으로써 전간기 지정학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사람은 스웨덴의 지리학자 켈렌이었다. ‘Geopolitik’이라는 용어의 창시자이기도 한 그는 1899년 지정학을 “지리적 유기체로서 또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국가 - 즉 지역, 영토, 영역이면서 또한 제국으로서의 국가 - 에 관한 이론”¹⁷⁾ 으로 정의했다. 그에게 국가란 삶의 거대한 법칙들 아래

12) 데이비드 딜레니, 『영역』, 시그마프레스, 2013, 68쪽 이하 참조.
 13) ‘Lebensraum’에는 특정 시대의 지정학적 의미 이외에 일상적 생활공간이라는 일반적 의미도 있고, 지금도 사용되는 용어이다.
 14) Friedrich Ratzel, *Politische Geographie*, München: Oldenbourg, 1897, p.42.
 15) Friedrich Ratzel, *Erdenmacht und Völkerschicksal. Eine Auswahl aus seinem Werk*, Stuttgart: Verlag Kroner, 1940, p.196. (Karl Haushofer ed.)
 16) Friedrich Ratzel, *Politische Geographie*, p.3. 이런 랏젤의 사고는 독일의 전통적 문화개념의 창시자인 헤르더(Johann Gottfried Herder)와 18세기 지리학자 리터(Karl Ritter)로부터 가져온 것이며 이에 자연법칙으로서의 민족의 운명을 강조한 것이다.
 17) Rudolf Kjellen, *Der Staat als Lebensform*, Leipzig, 1916; Mathias Schmoeckel, *Die Grossraumtheorie, Ein Beitrag zur Geschichte der Völkerrechtswissenschaft im Dritten Reich, insbesondere der Kriegszeit*, Berlin: Duncker & Humblot, 1994, p.82에서 재

종속되는 유기적 생명체였다: “공간, 민족, 경제,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자연법칙이라는 폭력이 거대한 필연성을 갖고 똑같이 작동하고 있으며, 정치인의 활동의 자유또한 얼마나 동일하게 제한하는지를 확인한다.”¹⁸⁾

이런 정세 변화에 대한 독일 지리학의 대응은 어떠했는가?

맥킨더가 두려워하던 독일의 동진은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중부유럽’(Mitteleuropa)이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져 지식인들과 군 전략가들에 의해 논의되고 있었고, 1차 세계대전 이전 이미 구체화된다.¹⁹⁾ ‘중부유럽’ 개념은 19세기 독일 보수세력이 만든 ‘대공간경제권’ 개념이 진화한 것으로서 중부유럽의 범위도 북해에서 페르시아만까지로 확대된다. 영국과 프랑스로 대표되는 ‘문명’(Civilization)이나 러시아의 ‘아시아적 전제정’에 맞서 독일적 ‘문화’(Kultur)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오직 중부유럽을 통합해야 한다는 이론으로서, 1차 세계대전의 패망 이후 이는 다시금 ‘생존공간’(Lebensraum) 담론으로 발전하는데, 궁극적으로 이들 이론들은 다윈 이후의 생물학적 이론과 19세기 말 랫젤의 논리를 빌려 발전시킨 것이었다.

독일의 전통적 국가유기체 세계관과 맥킨더를 중심으로 한 해양세력-심장(대륙)지역간의 충돌이론을 종합하고, 이를 묶어 ‘지정학’이라는 이름으로 대중들에게 전파하고 현실정치에서 실현코자 한 지리학자가 하우스호퍼(Karl Haushofer, 1869-1946)였다. 그는 켈렌의 지정학이론을 직접 사사하고 수용하면서, 이를 1차 세계대전 이후 패전독일의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는 하나의 독립된 분과학문으로 발전시키고자 계획한다. 그는 지정학을 “국가학을 기반으로 지리와 역사 간의 상호관련성을 하나의 통일적 구성체로 통합시키는 학문”으로 정의내린다:

인용.

18) Rudolf Kjellen, Ibid.,; Robert Meyer, *Europa zwischen Land und Meer*, pp.51-52 재 인용.

19) Friedrich Naumann, *Mitteleuropa*, Berlin: Reimer, 1915.

지정학은 정치적 진행의 토지와 결부성에 대한 학문이다. 지리학을 폭넓은 기반으로 삼고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치적 공간유기체와 그 구조에 대한 학문으로서의 정치 지리학을 기반으로 한다. ……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지정학은 정치행위에 무기를 제공하고자 하며, 정치적 삶의 안 내자가 되고자 한다. …… 지정학은 국가의 지리학적 양심 (Gewissen)이 되고자 하며, 또 되어야 한다.²⁰⁾

아울러 맥킨더의 심장부 개념을 바탕으로 독일-러시아-일본 (가능하면 중국까지 포함시키는)까지를 포괄하는 대륙블록 (Kontinentalblock) 시스템을 구성할 것을 제시한다. 일찍이 1908년부터 2년간의 일본 체류경험이 있었고, 이후 평생동안 일본사회를 이상적 국가모델로 삼았던 그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심장부를 구성하는 러시아를 받침대로 하여 독일과 일본이 균형을 이루는 그런 유라시아 축을 상상했던 것이다.²¹⁾

이런 그의 독일에 대한 정치적, 지정학적 미래 구상은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정치 엘리트들의 지정학적 실패에 대한 문제제기와 맞닿아 있었다. 인종적, 종족적 자기 결정권과 전후 새로운 국경 설정에서 역사적 요소를 존중하겠다는 윌슨의 평화원칙이 실제 협상과정에서는 단지 이상에 불과한 것이었음이 드러났고, 베르사이유 협상 결과 상당한 영토의 상실을 겪었던 독일은 이후 온건한 자유주의자조차도 나치의 과격한 영토회복론에 동조하게 된다.²²⁾

즉 독일의 지정학자들은 지정학적 법칙성에 대한 무지가 독일 패배에 직접적 책임이 있으며, 정치 엘리트들에 대한 지정학적 교육이 필요하고,

20) Karl Haushofer, *Bausteine zur Geopolitik*, Berlin: Kurt Vowinckel Verlag, 1928, p.27.

21) 이진일, 「생존공간(Lbensraum)과 대동아공영권 담론의 상호전이 칼 하우스호퍼의 지정학적 일본관을 중심으로」, 『독일연구』 29, 2015, 199~240쪽.

22) Lloyd E. Ambrosius, “Nationale Selbstbestimmung im 1. und 2. Weltkrieg: Eine Vergleichsstudie von Wilson bis Roosevelt”, Manfred Berg ed., *Deutschland und die USA in der Internationale Geschichte des 20. Jhs.*, Stuttgart: Steiner, 2004, pp.237~262.

정치의 지향도 이에 대한 인식으로 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재의 자연과학에 집중한 지리학도 정치적 측면의 강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았다.²³⁾

이런 배경에서 하우스호퍼가 중심이 되어 옵스트(E. Obst), 마울(O. Maull), 라우텐사흐(H. Lautensach) 등 당대 독일의 대표적 지리학자들을 편집인으로 끌어들여 1923년부터 ‘지정학지(誌)’ (Zeitschrift für Geopolitik)를 발간하면서 “정치행위에 무기를 제공하고자 하며, 정치적 삶의 안내자” 역할을 위한 플랫폼 구실을 하였다. 이 시기 대부분의 대학 지식인들처럼 이들도 예외없이 바이마르 공화국을 비판하면서 군주국으로의 복귀를 목표로 하는 보수주의자들이었다. 잡지는 나치의 패망까지 21년간 발행되면서 지정학 연구뿐 아니라 정치학, 공법학, 국가학, 인문학 등으로 범위를 넓혀나갔고, 정권과 별 갈등없이 조용하며 지속되었다.

정치지리학이 지리학의 부분학문으로 학술세계에서 오래 인정받아 왔음에 비해, 독일 지정학은 학문적 근거보다는 자의적 정의와 정치적, 군사적 상황에 이끌려왔으며, 정권의 약탈적 팽창정책에 학술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독일 패망 이후에도 오랫동안 나치 학문으로 폄하되어 왔다. 정치지리학이나 지정학 모두 지리결정론에 그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으며, 보수주의적 세계관에 기반한 학문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양 쪽 모두는 랏젤을 끌어와 자신들 논의의 근거를 댄다는 점에서 그들의 학문적 진술도 유사한 점이 있다.

독일의 역사학자 피터 쉐러 (Peter Schöller)는 “정치지리학과 지정학의 결정적 차이는 ‘경향과 예견’ (Tendenz und Prognose)의 학문적 연구인가, 혹은 실재적-프로파간다적 응용이냐를 통해 구분된다”²⁴⁾고 둘 사이를 구분하였지만, 정작 하우스호퍼 자신은 지정학을 분명하게 학술적으로 정의

23) Karl Haushofer, *Weltpolitik von Heute*, Berlin, 1934, pp.25-26.

24) Peter Schöller, “Wege und Irrwege der Politischen Geographie und Geopolitik”, *Erdkunde*, 11, 1957, pp.1~20.

내리고자 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구체적인 지역분석을 통해 지정학의 연구과제가 어떠한 것인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는 특히 그의 동아시아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에 잘 나타나 있다. 그에게 있어 ‘지정학의 전형적인 사례’는 일본이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의 지세(地勢)가 나타내는 조화와 단일성은, 일본민족의 성격과 능력을 결정지었으며, 일본의 세계사적 과제는 그 지리적 위치 및 세계정치상의 위치에 의해 명확히 운명지워져 있다는 것이다.²⁵⁾

III. 동아시아적 계기들

1. 맥킨더와 마한

서구 지정학의 전개에서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몇가지 결정적 계기들이 있었다. 1894/95년의 청일전쟁도 그 단초의 하나를 제공한다. 프랑스, 러시아, 독일, 3국의 개입으로 일본은 자신의 전리품 일부를 포기해야만 했고, 이제 영국이 단독으로 지배 하는 자유무역 중심의 제국주의 시대는 종말을 고하게 된 것이다. 이어 1904/05년 러일전쟁을 통해서도 다른 계기가 형성되는데, 전쟁이 발발하자 영국과 미국, 프랑스, 독일은 중립을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방식으로 러시아를 견제하며 일본을 지원한다. 이 같은 상황은 서구인의 ‘지구적 차원의 의식’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려준다. 제국주의 세력들이 동아시아라는 위상을 유라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주권관계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힘과 비슷한 가치관을 갖는 식민제국주의적 경쟁 속에서 글로벌한 관점, 즉 지구 전체를 포괄하는 분석과 전략으로 변

25) Karl Haushofer, *Dai Nihon. Betrachtungen über Gross-Japans Wehrkraft, Weltstellung und Zukunft*, Berlin: E.S. Mittler und Sohn, 1913.

화되었음을 의미한다. 19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런 대륙세력과 해양세력간의 지구적 각축에 대한 분석의 중심에는 맥킨더와 마한으로 상징되는 지정학 이론가들이 있었다.

유럽의 미래를 예측함에서 가장 비관적인 사람 중 하나가 맥킨더였다. 대학에서 지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의회 보수파 의원으로서, 그는 영국의 글로벌한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시키고자 제국주의적 개혁을 지지했다. 어떻게 지구상의 각기 다른 국가와 지역들이 전체 지정학적 구조 속 개별 요소로서 작동하는가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그의 지정학적 목표였다. 특히 그에게서 아시아 대륙은 ‘역사의 지리적 축’ (the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으로 명명할 만큼 결정적 요소였다.²⁶⁾ 그는 당시 팽배했던 영국의 제국주의적 이상과 반대로 ‘세계정치의 중심’은 중앙아시아 또는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주장했다. 19세기까지는 대양을 거점으로 하는 해양국가들이 팽창에 유리했다면, 이제 철로 시스템을 통해 내륙 깊은 곳까지 확장이 가능해지면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을 가져올 것이며, 새로운 세력에 의해 지구의 지정학적 요충지가 점령된다면 지금까지 지켜오던 유럽문명은 직접적인 위협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 그의 기본테제였다.

그의 심장지역 이론은 세계를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및 이를 둘러싼 초승달지역 (Crescent) 국가로 나누었다. 역사를 통틀어 볼 때 그가 유로-아시아라 부른 평원, 즉 육지로 둘러싸인 거대한 평원에 정착한 농경 공동체와 해상사회를 끊임없이 위협한 호전적인 유목민 공동체를 양산한 것은 바로 지역적 특성이었다. 이 지역을 장악할 가장 유력한 세력은 제국 러시아지만 개혁 없는 짜르체제 하에서는 러시아가 이들 지역을 포괄하

26) Halford Mackinder, “The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 *Geographical Journal*, 23, 1904, pp.421~437; 제리 브로턴, 「지정학- 헬퍼드 맥킨더의 역사의 지리적 중추, 1904년」, 『육망하는 지도. 12개의 지도로 읽는 세계사』, 알에이치 코리아, 2014, 477~523쪽; 김원수, 「헬퍼드 맥킨더와 영국 제국주의」, 이근욱 외, 『제국주의 유산과 동아시아』, 동북아역사재단, 2014, 139~174쪽.

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아시아 대륙을 구성하는 기존 국가들 중 누가 아시아의 중심부를 지배하는가?” 문제는 아시아를 둘러싸고 있는 초승달 지역의 국가들이었으며, 이들 국가들이 러시아와 힘을 합치면 언제고 위협의 주체가 될 수 있었다. 일본의 부상과 독일의 동부로의 팽창, 이를 통한 독일과 러시아의 연합, 이것이 맥킨더에게는 가장 커다란 위협의 시나리오였다.

그에게 1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자신의 예측을 어느 정도 증명한 것이었다. 1차 세계대전에서 동유럽의 지배권을 누가 갖는가의 싸움은 곧 아시아로 들어가는 입구, 즉 지구의 심장대륙의 컨트롤 권한을 누가 쥐는가의 문제였다. 만일 불세비즘이 독일에서 뿌리를 내린다면 독일과 러시아 사이의 동맹은 가장 큰 미래의 위협으로 보았다. (그의 이런 예견은 1939년 독소불가침조약으로 현실이 된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그는 자신의 ‘역사의 축’ 논문을 한권의 책으로 확장해 출간하면서, 유라시아 대륙을 ‘심장국가(heartland) 개념으로 바꾸어 묘사한다:

*동유럽을 지배하는 자는 심장국가를 지휘하고
심장국가를 지배하는 자는 세계-섬(World-Island)을 지휘하며,
세계-섬을 지배하는 자는 세계를 지휘한다²⁷⁾*

여기서 ‘심장국가’는 러시아의 모스크바 동쪽에서 태평양 연안까지를, 남쪽으로는 오늘날 이란의 북쪽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인디아, 중국까지를 포함하며, ‘세계-섬’이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 전체 덩어리를 의미한다.

전후 세계구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 쓰여진 이 책에서는 베르사이유 승전국에게 독일과 러시아간의 화해와 가까워짐을 경고하면서 이들 사이에 반독일, 반러시아적 독립국으로 된 일종의 완충선(Cordon Sanitaire)

27) Halford Mackinder, *Democratic Ideals and Reality*, London: Constable Publishers, 1919, p.106.

을 만들어 이들이 가까워짐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독일의 공업과 러시아의 광활한 대지와 농민들이 한데 합쳐진다면 지금까지 지탱되어 오던 전지구적 세력균형은 깨지고, 19세기와는 완전히 다른 지정학적 체제로 바뀔 것으로 보았다. 맥킨더에게 전통적으로 유럽 정치와 거리를 두어왔던 영국의 ‘영광의 고립’ 정책은 이제 폐기되어야 할 것이었다.

랏젤은 일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나 동아시아 공간 전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었다. 그는 러시아의 태평양으로의 팽창욕구를 일본이나 중국보다 더 큰 비중과 관심을 두고 서술하였음에 비해, 맥킨더는 일본을 미국의 태평양 진출의도에 대한 라이벌로 상정했고, 일본을 세계의 심장대륙을 둘러싼 주변 초승달국가로 두었다. 하지만 러시아와 일본간의 동맹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다.

유럽대륙의 대서양 맞은편에는 마한이 있었다. 미국의 제독이며 해양세력 이론가인 그는 ‘해양세력’ (Sea Power)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해양 사학자이며 전략가로서, 비슷한 시기 양 대륙의 지정학을 대표하던 맥킨더와 마한은 유사하면서도 다르고, 다른 듯 유사한 주장을 펼친다. 맥킨더의 기본적 입장이 대륙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 마한은 해양세력의 중요성을 주장했으나 두 학자 모두 유라시아 대륙의 핵심적 중요성과 장래의 위협의 핵으로서 러시아를 지목함으로써,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가운데 유라시아 대륙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궁극적으로는 유사한 정책을 제시한다.²⁸⁾ 유럽이 독일이나 소련에 의해 지배되거나, 아시아가 일본에 의해 지배된다면, 유럽 제국주의의 몰락을 의미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미국도 또한 독일이나, 소련, 혹은 일본의 헤게모니 하에서 샌드위치와 같은 신세가 될 것으로 보았다.

마한은 해양력을 한 국가를 열강의 위치에 올려놓을 수 있는 가장 결

28) 마한에 대한 국내 문헌으로는 필립 코로웰, 알프레드 사이어 마한: 해양사학자, 피터 파레트, 『현대전략사상가』, 국방대학원, 1989, 607~651쪽; 전용 편, 『지정학과 해양세력이론』,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9 참조.

정적 요소로 보았으며, 자신의 이론을 통해 19세기에서 20세기로 전환되는 시기 미국의 함선건조를 주도하였고, 미국이 고립주의에서 개입주의로 정책을 전환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마한은 미국에서 “가장 취약한 국경지대인 태평양 연안”이 직면한 위협에는 바다를 이용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²⁹⁾ 유럽의 세력균형을 옹호하기 위해서라도 영국과 동일한 만큼의 해양세력으로 미국이 등장해야 했다. 그의 세력균형의 지정학은 미 해군의 팽창을 정당화했으며 그의 연구의 가장 영향력 있는 실천가는 시어도어 루스벨트와 프랭클린 루스벨트였다.

대서양 내 미국 해군력의 주요 건설자와 지지자들에게 있어 ‘아시아 문제’란 아시아 대륙중심의 아직은 움직이지 않지만 바글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을 누가 행사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마한은 ‘아시아라는 문제’ (The Problem of Asia)는 “상호 왕래가 빨라지면서 대규모적으로 생겨날 것이고 과거 어느 때보다도 예민해지게 되면서 세계의 문제가 될 것”이라며, 아시아는 “급격히 표명되는 세계의 야심의 확산과 아시아에 대한 기회들 때문에 그 미래가 불안하게 다가오고 있다”³⁰⁾고 진단하였다.

미국의 문호개방정책(Open-door Policy)이란 중국과 협상하여 중국의 문호를 개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서방국가와 중국에 대해 협상하여 어느 국가도 전적인 독점권을 갖지 않고 동일한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중국 내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런 영토점령적 방식이 아닌 경제적 접근정책에 따라 미국은 유럽 열강처럼 중국의 분할에 직접 나서지 않고, 중국의 보호자나 친구로 스스로를 내세우고자 하였다.³¹⁾

29) 알프레드 마한, 『해상세력이 역사에 미친 영향 1/2』, 책세상, 1999(1890).

30) Alfred Thayer Mahan, *The Problem of Asia and its effect upon international policies*, Boston: Transaction, 1900, p.19, 86.

31) Colleen Lye, *America's Asia: Racial Form and American Literature 1893-1945*,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p.21.

맥킨더나 마한에게서 공통적으로 아시아라는 거대한 땅덩어리의 중심은 서유럽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대륙 내부에 존재하고 있었다. 마한과 맥킨더는 영국과 러시아의 경쟁을 해양세력 대 대륙세력의 충돌로 상징화하였고, 아시아를 두고 벌인 서구 제국주의자들의 싸움은 그래서 그 자체가 동과 서의 싸움으로 묘사되었다. 마한이 보기에 영국과 러시아는 원칙적으로 서로 상반되는 세력을 대표하지만, 역사적으로 해양세력이 대륙세력에 비해 지속적으로 우월했던 반면, 아시아 중앙에 위치한 거대한 땅덩어리와 러시아 주변에서 함께 나누고 있는 주변부 땅들은 이 결정적인 지역에서 해양세력의 영향력을 제한한다. 미국과 영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지정학적 관심은 큰 범위에서 상호 협력적이며 동맹적이었다.

둘은 공통적으로 일본이 아시아에서 지배를 확대해 갈 것으로 전망하면서 경고의 문자를 보낸다. 그들의 지리적 상상력 안에서 일본은 영국제국을 아시아에 투영한 상 그대로였다. 그럼에도 일본의 영토적 침탈은 짜르체제보다 상대적으로 더 근대화되었음을 근거로 어느 정도 정당화되어 받아들여졌다. 즉 문명이 발달하면 영토 또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이해했던 것이다.

2. 하우스호퍼와 독일 지정학자들

독일의 남태평양 군도 점령은 1914년 개전과 함께 조용히 막을 내린다. 전쟁에서 독일 해군은 기대와 달리 어떤 결정적 역할도 하지 못한다. 1차 세계대전의 패배 이후 독일은 교주만 조차지와 남태평양의 섬들을 일본에 넘겨주었고, 독일의 극동정책은 베르사이유 평화조약 이후 사실상 새롭게 시작해야 했다. 독일인들은 일본이 전후 독일의 식민지를 몰수해 간 것을 1895년 시모노세키조약 체결 후 일본 편을 들지 않았던 것에 대한 복수로 이해했다. 중국에서의 각종 특권의 상실은 독일을 동아시아에서의 열강의 위치에서 완전히 몰려나게 했는데, 이는 동시에 중국과 일본

에 대한 관계도 근본적으로 바뀌놓게 된다.

독일은 세계 전쟁(1차 세계대전 의미, 필자)의 종료 이후 아시아에 어떤 권력정책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독일의 중국과의 관계는 다른 열강들과 달리 순수 경제적 특성만을 갖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독일인이 오늘날 그저 무역과 학문적 연구목적으로 자기 나라를 방문한다는 것을 아시아인들이 알고 있으므로, 독일인들의 대부분은 우호적으로 받아들여진다. …… 독일 민족의 전쟁 용맹성, 그리고 베르사이유 조약 이후에는 상실되었던 무역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는 끈질김등으로 아시아인들에게 독일인들은 높은 존경을 받고 있다.³²⁾

1919년 오스발트 (Paul Oswald)는 독일의 전쟁 전 동아시아에서의 정책적 소극과 무관심은 근본적 오류였다고 진단한다.³³⁾ 하우스호퍼도 독일이 “오늘날 세계정치에서 동아시아 정책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은 채, 관심을 유럽에서의 독일의 국경을 분할하고 축소시킨 국가로만 제한하게 되면 대 파국에서 다시 일어날 수 없다.”³⁴⁾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바이마르 시대 외교부뿐만 아니라 대표적 지성학자들은 바이마르의 중립적 특성을 받아들였고 동아시아문제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외교정책상의 목표로 받아들인다. 즉 독일은 동아시아에서 경제정책과 문화정책에만 집중함으로써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스스로 제한하고자 생각했던 것이다.

32) Ernst Roedenberg, “Die politischen Mächte Chinas, Ausländische Mächte IV”, *ZfG (Zeitschrift f. Geopolitik)*, 9, 1932, p.29, Rudolf Gottschlich, *Der Stellenwert Japans und Chinas in Politischer Geographie und Geopolitik vor dem Hintergrund der Ostasienpolitik des Deutschen Reiches*, Frankfurt a.M: Neue Wissenschaft, 1998, p.232 재인용.

33) P. Oswald, “Fehler und Forderung der deutschen Ostasienpolitik”, *Asien* 16, 1919, p.55 이하.; Rolf-Harald Wippich, “Das Auswärtige Amt und Ostasien 1871-1945”, Jost Dölfer, Bernd Martin, Günter Wollstein, ed., *Deutschland in Europa*, Frankfurt/M./Berlin: Propyläen, 1990, p.124 재인용.

34) Karl Haushofer, “Die Eigenart der japanischen Staatskultur von Dr. Hans Überschaar. Eine Einführung”, *ZfG*, 2, 1925, p.173.

이런 정책은 나치의 집권 이후에도 한동안 변하지 않는다. 1935년 이전 동아시아는 독일 외교부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전통적으로 독일 외교부는 중국을 파트너로 생각했고 1936년 리벤트로프가 외교부 내에서 주도권을 잡으면서 일본에 대한 강조로 옮겨가기 시작한다.³⁵⁾ 이제 더 이상 경제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문제인 것이며, 나치의 외교문제를 장악한 리벤트로프로서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런 동아시아 정책 변화의 첫 결과가 일본과의 반코민테른 조약체결이었다.

하우스호퍼가 지정학 연구에서 켈렌의 영향을 받았음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지만, 동시에 그는 켈렌의 일본의 부상에 대한 찬탄까지도 함께 받아들인다. 켈렌은 일본을 이미 1차 대전 이전에 비 백인국가 중 유일하게 열강의 지위를 갖춘 국가로 보았다. 그는 일본의 상승을 ‘전례없는 연기’로 치켜세우면서, “세계는 일본처럼 결단력 있고 급격한 변화를 본적이 없으며, 인류사에서 유럽적 문화생활의 공유자로 성장하였다”고 높이 평가한다.³⁶⁾

이를 본받아 하우스호퍼도 상대적으로 늦은 산업화와 유사한 권력구조 등등 여러 점에서 독일과 일본 사이의 관계를 역사적 공통성, 나아가 운명공동체 (Schicksalsgemeinschaft)로까지 언급하면서 특별한 일본적 현상들에 대해서는 독일이 지향해야 할 모델로까지 상정한다.

그는 중국과 일본을 비교하면서, 대륙을 배경으로 태풍에 지배되는 중국과 해양에 지배되는 도서적 특성을 가진 일본은 인종구성뿐 아니라 국가나 사회적 경험에서도 근본적으로 상이하다고 진단한다. 국가형태에 있어 중국은 수천 년을 내려오며 고유의 왕조와 외부로부터 들어온 왕조가 서로 교체되면서 지배해왔음에 비해, 일본은 왕국이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하나의 동일한 왕조에 의해 지배되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근본

35) Rudolf Gottschlich, *Der Stellenwert*, p.74.

36) Rudolf Kjellen, *Die Grossmächte vor und nach dem Weltkriege*, K. Haushofer ed., Leipzig: Teubner, 1930, p.150, R. Gottschlich, *Der Stellenwert*, p.97에서 재인용.

적으로 혁명적임에 비해 일본은 개혁적이며, 중국이 해양을 가로지르는 진격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일본은 대륙을 가로지르는 진격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³⁷⁾

하우스호퍼가 보기에 일본의 조선합병은 독일에게도 적절한 본보기였다. 부족한 농지의 확보를 위해 자국의 농민을 주변 국가로 이주시키는 작업은 독일에도 필요한 작업이었다. 이미 독일은 19세기 말에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독일인 이민자가 2백만 이상으로 늘어나 있었다. 즉 히틀러가 인종적 비전에 함몰된 채 유럽 동부로의 확산을 꿈꾸었다면, 하우스호퍼는 러시아를 유라시아에서 독일과 일본을 연결시킬 동등한 파트너로 보면서, 앵글로 아메리카 국가들의 해양 정복에 대항하는 트랜스컨티넨탈 블록을 구상한 것이다.

IV. 광역체제의 구상과 동아시아

1. 대륙블록 체제 (Kontinentalblock System)

하우스호퍼는 1941년, 즉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히틀러의 스탈린그라드를 향한 진격명령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민족사회주의노동자당(NSDAP) 출판사를 통해 <대륙블록. 중부유럽-유라시아-일본(Kontinentalblock, Mitteleuropa-Eurasien-Japan, München, 1941)>³⁸⁾ 이라는 책을 출간

37) Karl Haushofer, "Ostasiatisches Kräftepiel", K. Haushofer ed., *Probleme der Weltpolitik in Wort und Bild*, Leipzig, 1939, p.93 이하. 그는 <지정학지>에서 매달 '인도-태평양 세계 소식' (Berichtserstattung aus der Indo-pazifischen Welt) 이라는 고정코너를 만들어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정치, 경제적 상황들을 전하였다.

38) Karl Haushofer, *Kontinentalblock. Mitteleuropa-Eurasien-Japan*, München: Breitkopf & Hrtel, F. Eher Nachf., 1941.

한다. 55페이지에 불과한 비교적 짧은 글에서 그는 독일 - 유라시아 대륙 - 일본을 연결하는 동서 유라시아 네트워크의 구성을 제안했다. 해양 세력과 대륙세력 간의 충돌을 “인간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지속적 동인의 하나로” 생각해 왔던 하우스호퍼는³⁹⁾ ‘중부유럽의 신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륙전체를 하나로 블록화 하는 작업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것은 세계를 육상세력과 해양세력으로 분할하는 맥킨더식의 사고에 대한 하우스호퍼식 대응이었다: “제국이라는 공간적 사고를 지배하는 세력과의 지구상에서의 존립을 두고 벌이는 투쟁은 내가 생각하기로는 맥킨더의 ‘역사의 지리적 축’ 논문에서 그 가장 큰 지리적 사고의 형식을 찾았다고 생각된다.”⁴⁰⁾

그가 제시한 ‘대륙블록’ 이론은 히틀러가 제시하는 동유럽 중심의 ‘대공간경제’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였으나, 하우스호퍼는 이런 지정학적 확대과정에서 본인이 직접적 중재를 통해서건 혹은 출판이나 간접적 조언을 통해서건 일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지정학자로서 이런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대륙정책의 형성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보았다: “의심할 바 없이 우리 시대 가장 크고 중요한 세계정치상의 전환은 유럽과 북아시아, 동아시아를 규합하는 강력한 대륙블록의 형성이다.”⁴¹⁾ 그의 의도는 독일제국을 유라시아의 대륙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 위치로 올려놓음으로써 앵글로색슨이라는 세계패권을 흔들고자 하는 것이었지만, 이는 독일의 힘만으로는 안되는 작업, 즉 러시아, 일본과의 협력뿐 아니라 기존 제국주의 세력과의 패권투쟁을 부르는 작업이었다. 그는 유라시아대륙 공간결합의 지정학적 토대에 관해 설명하는데, 이런 토대가 적, 즉 맥킨더의 이론으로부터 응용해 가져온 것임을 숨기지 않는다.⁴²⁾

39) Karl Haushofer, *Geopolitik der Pan-Ideen*, Berlin: Zentral-Verlag, 1931, p.56.

40) Karl Haushofer, “Staat, Raum und Selbstbestimmung”. *Raumüberwindende Mächte*, Berlin/Leipzig: Teubner, 1934, p.76.

41) Karl Haushofer, *Kontinentalblock*, p.3.

책 II 부에서는 <지정학적 식민지 가능성>에 대해 탐사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전형적인 유럽 식민주의자로서의 우월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큰 가치를 부여했던 태평양에서의 우리의 과거 문화적 업적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정신적 공동작업의 권리를 우리 것으로 획득해야 한다. 이탈리아 인들도 추구하듯이, 우리는 태평양 공간에서의 거대한 문화학적, 정치-경제학적 감시의 한 부분에 다시 참가해야 하며, 우리의 과거의 이 지역에서의 큰 성과를 바탕으로 다시금 거대한 세계정치적 연관성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런 그의 대륙블록 이론은 이미 과거부터 준비되어 온 것이었다. 그의 생각으로는 독일-러시아-일본 3국은 공통으로 반자본주의적, 반 서구적 입장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이 세력이 앵글로색슨의 세계의 후견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집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⁴³⁾ 이미 하우스호퍼는 1차 세계 대전 발발 직전에 <대일본> (Dai Nihon)에서 앵글로색슨 세력에 대한 혐오와 독일 - 일본 - 러시아 간의 밀접한 연결을 통해 자신이 앞으로 구축할 대륙블록 이론의 단초들을 보여주고 있었다⁴⁴⁾:

독일 - 일본 - 러시아 -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앵글로색슨의 후견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집단이 될 수 있다 …… 이 세력권은 뿌리깊은 왕조들에 대한 견고한 충성을 보여줄 - 민주주의로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자신의 이성을 상실한 영국이나 혹은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등이 모두 제시할 수도 없는 - 하나의 보증이 될 수 있다. 만일 이 세 국가

42) 하우스호퍼는 “Fas est ab hoste doceri” (적으로부터 습득하는 것은 성스러운 의무이다)라는 라틴어 경구를 인용하고 있다. Karl Haushofer, *Kontinentalblock*, p.3.

43) Karl Haushofer, *Dai Nihon*, p.262.

44) 1910년 하우스호퍼가 일본 체류를 마치고 서울을 거쳐 트랜스시베리아 철도를 통해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 경유 베를린까지의 여행은 그로 하여금 독일-러시아-일본 간의 대륙을 가로지르는 관계를 몸으로 체험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이후 그는 독일로 돌아와 지리학을 공부하면서 맥킨더의 심장대륙이론과 켈렌의 지정학을 토대로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세력에 맞설 자신의 대륙블록 개념을 구성해간다.

가 함께하지 않으면 독일은 서구의 연합세력의 후견으로부터, 일본은 앵글로색슨의 자본으로부터, 러시아는 ‘분할을 통한 지배-정책’(divide et impeara-Politik)을 통해 여전히 가로막힌 방해들로부터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⁴⁵⁾

이어 1925년에도 그는 중부유럽과 러시아, 일본의 결합을 통해 앵글로색슨 연합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으리라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다:

중국, 일본, 러시아 간의 평화로운 평형을 유지하고, 일본의 군국주의와 죄 없는 희생양을 향한 미국의 공격의지에 대하여 중부유럽이 더 이상 호응하지 않으며, 대서양의 백인 강도세력들의 모든 인종적 선동을 격리시키며, 미국의 경제적 제국주의와 해군-제국주의 앞에 우리 공적 여론이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게 될 것이다.⁴⁶⁾

이는 사실 전통적으로 독일이 생각해 온 러시아관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독일은 지금껏 러시아를 ‘동으로의 진격’(Drang nach Osten)을 통해 문화적 사멸을 실천할 장소, 아시아의 야만인들(Asiatic Barbarians)들의 나라로 생각해왔다.⁴⁷⁾

즉 히틀러가 인종적 비전에 종속된 동부에서의 생존공간을 꿈꿨음에 비해, 하우스호퍼는 러시아를 유라시아에서 독일과 일본을 연결시킬 동등한 파트너로 보았다. 그 점에서 하우스호퍼는 당대의 다른 지리학자, 지정학자들과 달랐고 히틀러와도 달랐다. 그의 시선은 지속적으로 일본과 인도-태평양 공간에 가 있었다.⁴⁸⁾

45) Karl Haushofer, *Dai Nihon*, p.262.

46) Karl Haushofer, “Der Ost-Eurasiatische Zukunftsblock”, *ZfG*, 2, 1925, pp.81~87, p.84.

47) Milan Hauner, *What is Asia to us? Russia's Asian Heartland yesterday and today*, London: Routledge, 1992, p.166.

48) 이러한 하우스호퍼를 가리켜 역사가 단 디너(Dan Diner)는 “반앵글로색슨, 반해양적이며, 대륙-자급자족 경제적이며 반유대적이다”고 표현한다. Dan Diner, “Grundbuch des Planeten. Zur Geopolitik Karl Haushofers”, *Vierteljahrshefte für*

그럼에도 하우스호퍼가 세계를 보는 시각은 자기모순에 빠져있었다. 그는 세계를 특권적 가진국가(Have)와 탄압받는 못 가진 국가(Have-not)로 양분하면서, 독일을 못가진 국가에 위치시키는 반면, 유럽과 식민지 국가의 폭력성, 그들의 약탈과 욕심에 대해 철저히 비판하지만, 동시에 독일의 확장과 정복, 영향력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기존 제국주의 국가들을 원료착취, 금권독재(Plutocracy), 서구의 강탈권력, 난폭한 제국주의 등으로 비난하면서,⁴⁹⁾ 승전국들이 독일을 고립시켰기 때문에 독일은 동남아시아 민족들과 협력하여 식민국가 세력과 맞서도록 단결해야 한다고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한다. 그는 이런 협력을 위한 공동의 이해기반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다. 베르사이유 체제 하에 희생된 국가들, 즉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소련, 일본 등으로 구성된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결합한다면, 점차 중국, 인도 등 다른 ‘못가진’ 국가들도 결합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영국이나 미국의 지정학적 정책과는 다른, 즉 “착취나 억압과는 관련 없이 오직 지도적 사고에서 우리의 정당성을 찾아야 한다. 이와 동일하게 또한 평화적 확산이 이웃국가들에게도 적용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⁵⁰⁾ 그는 비록 자신의 책에서 대륙블록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민들의 연방을 계획한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그는 세계를 이미 지도국가(Führungsnation)와 보호가 필요한 국가로 나누었고, 그 가장 대표적 경우로 그는 일본의 조선합병을 제시하였다. 이에 반해 그를 포함한 독일 지정학계는 만주점

Zeitgeschichte, 32, 1984. 1, p.3.

49) Karl Haushofer, *Kontinentalblock*, p.50. 그는 유라시아와 태평양 연안 아시아 국가들은 앵글로색슨의 후견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며, 진정한 자기결정권을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갑자기 침공한 것에 대해서는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서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영국과 프랑스의 사주에 의해 언제나 대륙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시소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대륙의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서구세력에 대한 정당한 방어로 표현한다. p.32 이하.

50) Karl Haushofer, *Weltpolitik von heute*, p.150.

령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이었으며, 독일의 동유럽으로의 확장을 위한 하나의 모델로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대륙블록>이 출판된 것은 외교적으로 절묘한 시기였다. 1936년 독일은 일본과 반코민테른 조약을 맺으며 소비에트 러시아로부터의 공격에 공조하기로 하였고, 1939년에는 독-소 불가침조약 체결, 1940년 베를린-로마-도쿄의 3각 동맹, 그리고 1941년 4월 일본은 러시아와 불가침조약을 맺음으로써 마치 하우스호퍼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대하고 준비해오던 세 대륙을 연결하는 협정이 코앞에 다가오는 듯 보이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는 이를 마침내 자신의 지정학이 세계정치적 필연에 의해 이데올로기적 저항을 극복했다고 보았으며,⁵¹⁾ 오히려 1941년에야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아쉬워하고 있었다.⁵²⁾ 몇 달 후 독일이 소련을 침공함으로써 이것이 단지 히틀러의 일시적 전략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는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히틀러의 러시아 침공은 그의 이런 전체를 모두 무너트린다. 그의 정권을 향해 제시했던 지정학적 대안이 소통없는 일방향의 제시였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⁵³⁾

하우스호퍼는 과도한 일본선호로 인해 유라시아 대륙에서 중국이 갖는 위상에 대해 분명한 설정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중국을 배제한 대륙블록 이론이 성립하겠는가? 그렇다고 그가 독일-러시아-일본의 블록 시스템에서 말을 구체적인 일본의 역할을 제시한 것도 아니었다. 그에게는 구체성이 부족했다.

궁극적으로 20세기 초 서구의 지정학은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있는 소비에트 러시아를 어떻게 제어하는가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우스호퍼의 대륙블록 이론의 단초가 하필이면 맥킨더에 의해 제공되긴 했지만, 결국 두

51) Karl Haushofer, *Kontinentalblock*, p.15.

52) Ibid., p.40.

53) 나치 정권과 하우스호퍼간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이진일, 「생존공간(Lbensraum)과 대동아공영권 담론의 상호전이 칼 하우스호퍼의 지정학적 일본관을 중심으로」, 226쪽 이하 참조.

사람의 관심사가 그만큼 동일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는 하지만 러시아를 작동시키지 않으면 이루어 질 수 없는 비전이였다. 그래서 하우스호퍼의 지정학은 소련을 동아시아의 권력구도의 일원으로 위치시킴으로써 서구세력이 만들어놓은 동아시아 권력구도를 막고자 하는 모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모순을 독일이 유럽을 지배하고, 다른 한편으로 일본이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을 지배함으로써 러시아의 남진을 막는 방식으로 풀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 면에서 그의 이론은 어느 정도 내적 논리를 유지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소련의 공산주의 블록에 대한 반감은 서구사회에서 여전했고, 그래서 처음부터 하우스호퍼의 대륙 블록 이론은 러시아를 끌어들이면서 소비에트 공산주의체제와는 맞서 싸워야 하는 풀 수 없는 딜레마에 놓여 있었다.

2. 대공간 정책 (Grossraumpolitik)

유럽 동부지역까지 확장된 인종적으로 균질한 ‘생존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은 히틀러의 집권 이후 단절없이 지속되지만 1939년의 전쟁 개시, 보다 구체적으로는 1941년 러시아 침공을 계기로 이런 사고는 완전히 제국주의적 팽창프로그램으로 바뀌게 된다. 그것은 독일이 보기에 1차 세계대전 이후 일방적이고 불균등하게 분할된 공간을, 독일민족의 문화를 되살리고 인종적 질서에 부합하는 대공간으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공간재편 프로그램이었다. 인종적으로 균질적인 인구재편을 위해서는 일단 점령과 원주민의 추방이 병행되어야 하며, 인구와 물자의 엄청난 이동이 요구되는 작업이었다.

이를 위한 이념적 정지작업을 준비한 사람 중 하나가 칼 슈미트 (Carl Schmitt, 1888~1985)였다. 국제법과 공법학자로서 그는 1939년 “외부세력의 개입금지를 동반하는 국제법상의 대공간 질서”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고, 연이어 국가의 주권을 뛰어넘는 공간의 침탈을 정당화시키는, 국

제법상의 공간이론을 재해석한 이론들을 발표한다.⁵⁴⁾

그는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되는 전지구화의 확산이라는 역사적 진행을 통해 대공간 경제를 분석하면서 유럽공법으로부터 국제법시대로의 이행 사이의 구조적 연관성을 연구했고, 정치적 공간질서의 변화, 즉 개별 독립적 주권국가의 몰락과 초국가적 대공간의 성립을 예상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지구적 공간질서가 19세기 말에 상실됨으로써 유럽 국제법은 그 발판을 잃었으며, 전쟁의 제한 역시 더 이상 보장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간 질서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기는 했으나, 그 최종적 형태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1823년 발표된 먼로독트린 (Monroe Doctrine)을 국제법상 가장 성공적인 대공간 원칙으로 보았다. 물론 미국은 먼로독트린 이후 자신의 원칙을 깨고 세계분할에 함께 뛰어들었으며, 특히 윌슨에 의한 제 국민들의 자기결정권을 통해 민주주의와 휴머니티를 앞세운 제국주의적 개입을 지속해왔지만, 슈미트는 이를 현재 독일의 권력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는 가장 유용한 핵심사상으로 받아들였다.⁵⁵⁾ 슈미트는 대륙과 해양이라는, 상호 충돌하는 공간 원칙을 설명하면서, 전자가 서로 연관을 갖고 있는 대륙공간에 바탕한 원칙이라면, 후자는 무역과 교통로의 확보에 기반한 해양세력의 공간이해가 있음을 밝힌다.

슈미트의 개념적 해결방식은 대공간(Grossraum)이었다. 대공간이라는 용어 자체는 슈미트 자신이 고안해 낸 것이 아닌 일반적 정치경제 용어였지만, 그는 자신의 국제법 연구 속에서 그 의미와 방법을 개념화하였

54) Carl Schmitt, *Land und Meer*, Stuttgart: Klett-Cotta, 1942; Carl Schmitt, *Staat, Grossraum, Nomos. Arbeiten aus den Jahren 1916-1969*, Berlin: Duncker & Humblot, 1995. 슈미트의 공간이론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풍성하다. 대표적으로 Rudiger Voigt ed., *Grossraum-Denken. Carl Schmitts Kategorie der Grossraumordnung*, Stuttgart: Steiner, 2008; Mathias Schmoeckel, *Die Grossraumtheorie*. 아울러 『뉴레프트 리뷰』, 2013 No. 4, 길, 2013에 실린 일련의 칼 슈미트 특집도 참고할만 하다.

55) Carl Schmitt, *Völkerrechtliche Grossraumordnung*, Berlin: Duncker & Humblot, 1941, p.271.

다. 바이마르 시대에 ‘대공간경제’ (Grossraumwirtschaft)라는 용어는 독일이 유럽 내에서 헤게모니를 쥐기 위한 기반을 풍요롭게 하는 이념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용어였다. 슈미트는 비록 하우스호퍼의 지정학을 읽었고 영향도 받았지만, 의도적으로 하우스호퍼나 그의 용어를 인용하지 않았다. 슈미트는 현실에서 독일 대공간체제에 대한 자세한 정치적 계획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필요한 국제법의 새로운 타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제안도 드러내지 않았다.

슈미트의 ‘대공간질서’ 이론이 나치의 정복정책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이론이었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그렇다고 그의 이론이 나치의 국제법 이론이나 생존공간 획득을 위한 정복이론과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 ‘대공간질서’ 이론이 이론적이고 개념적 구성물이었다면, ‘생존공간’ 이론은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나치의 정복과 학살정책을 통해 실천된 이론이었다.⁵⁶⁾ 슈미트는 나치의 유럽 정복을 나서서 옹호하지도 않았고, 대공간이론을 유럽정복을 목표로 구축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1939년 일단 전쟁이 시작되자 슈미트는 이를 기정사실로서 받아들였고, 독일의 입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길을 찾는다. 그럼에도 1941년 이후 슈미트의 논리는 더 이상 독일 외교정책과 일치하지 않게 되며, 그 자신도 사실상 모든 권력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비록 하우스호퍼가 히틀러를 통해 자신의 대륙블록시스템의 실현가능성을 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히틀러와 하우스호퍼의 지정학과 나치의 대공간정책 간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증명할 언급이나 자료는 없다. 하우스호퍼의 이론과 히틀러의 생존공간 이론은 목표에서도, 실행방법에서도 서로 달랐고, 슈미트의 대공간 이론과도 상이한 이론들이었다.⁵⁷⁾ 히틀러는 대륙블록이란 용어 자체를 쓰지 않았으며, 그는 아프리카

56) 이러한 슈미트의 대공간 이론과 나치 생존공간 간의 이론상의 차이는 슈미트를 나치 시절에 더 이상 공개적 활동이 어렵도록 만든다.

57) ‘대륙블록’이나 ‘대공간’이라는 용어와 달리 ‘생존공간’이라는 용어는 이미 나치 이전부터 독일 보수주의자들이 동유럽을 겨냥하여 쓴 용어이며, 히틀러는 이를

나 동아시아에의 식민지 확대 등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오직 유럽 내에서 동유럽으로의 ‘생존공간’ 확대에만 집중했다.

V. 맺음말: 공간을 역사 서술에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

지정학은 19세기 말 글로벌화된 자본의 공간압축적 경향에 맞서 인간의 삶이 갖고 있는 영토 결합성을 옹호하고 복원시키고자 했던 운동이다. 지정학을 공간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하는 학문이라 할 때, 역사적으로 그것은 두 가지 차원을 지녔다. 하나는 현실정치적 관계를 설명할 학문적 분석도구로서의 사용이었고, 다른 한편 이를 넘어 정치적 행위를 이끌어가는 공격적 도구로 이해되었다. 서구 식민제국주의자들은 지구상의 힘의 관계를 새로운 공간질서로 변화시키는 분과학문으로 지정학을 발전시키고자 했으며, 동시에 그 속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사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 단초적 계기들은 맥킨더나 마한으로 대표되는 앵글로색슨 지리학자들에 의해 촉발되고 이론화되고 확산되었으며, 독일 지정학자들에 의해 학문적 옷을 갈아입은 후에는 다시금 미국, 러시아와 일본 등 전 세계로 전략과 개념이 확산된 트랜스내셔널 전파의 전형적 예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새로운 학문이 공간을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 즉 한 국가 내의 경제, 인구, 문화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분석도구로서의 미흡함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정학은 산업시대 경제적 관련성에 대한 분석을 생략했고, 이것이 야기할 사회적 문제로까지 생각을 확산시키지 못했다.

우리의 존재는 시간적 질서와 공간적 자리매김으로 구성된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과 공간은 우리들 삶의 기본조건이다. 역사적 공간, 공간구조,

전쟁을 통해 실현시키고자 시도한 것이다.

공간질서, 공간적인 것에 대한 인식이 늘어나는 현상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시대, 모든 사건을 공간과 관련지어 생각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역사 연구에서 문제는 이 양자를 어떻게 상호 연관 시키는가 이다. 어느 면에서는 역사학에서 공간을 구체적인 단위 (도시, 경관, 지역, 바다 등)를 의미하는 구성요소로 사용하는 방식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근대적 의식 속에서 공간은 지속적으로 시간에 종속되어 왔다. 근대의 단선적 시간관, 산업혁명을 통한 거대한 시-공간 압축현상 (time-space compression), 제국주의적 팽창, 근대화 이론, 현대의 신자유주의적 변형까지 - 지속적으로 공간은 생략되거나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으로만 이해되어 왔다. 사회적 변화와 사건을 주로 시간적 인과관계라는 틀 속에서 이해해 온 것이다. 큰 틀에서 우리는 이를 역사주의가 갖는 장점이요, 특성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역사주의적 관점은 역사학만의 진행이 아니었고,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신학, 철학, 법학 등 근대의 다양한 학문들 안에서 진행되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역사학의 서술에서 공간을 끌어들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공간개념은 모호하다. “역사기술에서 ‘공간’은 행간에 숨어있고, 시선이 형성되는 과정에 숨어있으며, 지각한 것과 역사 기술이 기록되는 곳 속에 은닉된 채로 존재한다.”⁵⁸⁾

역사학에서 공간이론을 사용한다 함은 사회적 구성물의 재구성 가능성에 대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공간적 전환’(spatial turn) 이란 무엇보다 먼저 역사를 그 공간적 조건들 안에서 사고하고, 공간인지의 변화들 자체에 대해 추적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의 ‘공간적 전환’ 논의가 단지 몇몇 지식인들의 유행적 사고의 산물은 아니다. 글로벌화, 국경을 넘나드는 이민, 전자통신, GIS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다국적 기업, NGO, 소수민족, 이주민, 여성, 공정무역

58) 칼 술뢰겔, 「공간 그리고 역사」, 슈테판 쿨첵 편, 『토폴로지』, 에코리브르, 2010, 36쪽.

을 위한 요구, 환경보호 등 국내적 영역과 국외적 영역이 구분 될 수 없다는 점을 오늘날의 현실은 보여주고 있다. 사이버 공간 역시 우리가 공간을 다루는 개념 자체를 바꿔 놓았다.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정체성과 주체성에 심각한 변화를 주고 있고, 오늘날의 경제, 정치, 문화, 사회사상 등에 있어 훨씬 넓은 변환을 예고하고 있다. 이 점은 명확하다.

‘공간적 전환’(spatial turn)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 낸 미국의 지리학자 소자 (Edward Soja)는 지리가 중요하다든지, 공간이 차이를 만든다고 열심히 주장하면서, 공간에 대한 은유, 지리적 서술, 몇 가지 훌륭한 지도를 덧붙이는 것만으로는 공간으로의 새로운 접근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또한 공간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서술이 역사의 지리적 성격을 설명하는 방식도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공간은 건물이나 가구, 지형 같은 것들이 인간을 통해 인지되고, 인간의 삶 속에 연결될 때 비로소 탄생한다는 것이다.⁵⁹⁾ 공간도 지도도 다시금 그 중심에는 인간이 자리한다. 인간의 삶에서 공간이 만들어내는 강력한 힘.

앙리 르페브르에 이르러 비로써 지리나 공간이 중립적인 것이 아닌, 이데올로기적이며 살아있는 주체적 대상임이 드러난다. 공간은 ‘생산’된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이다.⁶⁰⁾ 지리와 공간에 특별히 관심이 많았던 푸코는 자신의 규율담론과 권력담론의 역사적 탐구를 통해 공간과 장소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사건, 사람, 제도 등과 관계를 맺어왔는가를 보여준다.⁶¹⁾ 그렇다면 공간성(Räumlichkeit/spatiality)의 시각에서 제국주의 시대 동아시아를 다시 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공간질서에 대한 제국주

59) 에드워드 소자, 『공간과 비판사회이론』, 시각과 언어, 1997(1993).

60) 앙리 르페브르,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1985).

61) Michel Foucault, “Of Other Spaces, Heterotopias.” *Architecture, Mouvement, Continuité*, 5, 1984, pp.46~49. (“Von Anderen Räumen”, *Schriften 4*, Frankfurt/M.: Suhrkamp, pp.931-942.). 독일 역사가로서 공간개념을 역사서술 안에 넣는 작업으로 가장 인정받는 이는 칼 쉐뢰겔이다. Karl Schlögel, *Im Räume lesen wir die Zeit. Über Zivilisationsgeschichte und Geopolitik*, Frankfurt/M.: Fischer, 2006. 이진일, 「주권-영토-경계: 역사의 공간적 차원」, 『사람』 35, 2010. 2., 400~422쪽 참조.

의의 입장과 피식민국가의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다. 지리와 지정학은 제국주의적 침탈과 각축을 가장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학문이다. 지정학은 구조의 학문이다. 무엇보다 자연에 대한 지리결정론적 사고, 즉 공간이 인간의 삶에 어떻게 조건지어지는가의 문제를 벗어나 공간성의 문제, 즉 공간의 구조적 측면과 인간이 만들어 낸 공간질서의 위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역사학 내에서 지리와 공간의 문제에 대한 요구는 역사학 내부에서 누적된 문제에 대한 반작용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반작용의 본질적인 원인은 아마도 세계화라는 역사학 외부의 작용과 이에 대한 학문적 대처의 일환일 것이다. 역사학에서 20세기의 공간개념이 다른 무엇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의 배후로서 파악되었고, ‘공간없는 민족’ (Hans Grimm) 팽창지향적 사고, 국경의 팽창, 식민지배, 제국주의적 사고, 자연공간의 장악에 대한 정당화 등을 위한 분석의 도구로서 진행되었다면, 21세기의 변화된 세계에서 공간개념은 사회적 맥락에서 구성되는 공간성 논의와 역사적 공간 사이 (팽창적/제국주의적 사고) 사이에 존재하는 그 어떤 연결고리를 밝혀내는 것을 연구과제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세계를 하나의 전체로 파악하면서, 공간성을 통해 시간성이 갖는 약점을 보완하는 일, 지리적 결정론이 남긴 흔적을 제거하는 일, 근대적 시간구조가 만들어낸 공간편제의 불공정성을 폭로하는 작업은 여전히 역사학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 참고문헌

『뉴레프트 리뷰』, 2013 No. 4, 길, 2013.

데이비드 딜레니, 『영역』, 시그마프레스, 2013.

앙리 르페브르,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1985).

에드워드 소자, 『공간과 비판사회이론』, 시각과 언어, 1997(1993).

이강원, 「근현대 지리학의 아시아 연구 경향과 새로운 의제들」, 『아시아 리뷰』, 2011. 1.

이근욱 외, 『제국주의 유산과 동아시아』, 동북아역사재단, 2014.

이진일, 「‘생존공간’(Lebensraum)과 ‘대동아공영권’ 담론의 상호전이」, 『독일연구』, 2015. 6., 199-239쪽.

이진일, 「주권-영토-경제: 역사의 공간적 차원」, 『사림』 35, 2010. 2., 400-422쪽.

제리 브로턴, 『욕망하는 지도 - 12개의 지도로 읽는 세계사』, 알에이치코리아, 2014.

Diekmann, Irene, u.a. ed., *Geopolitik: Grenzgänge im Zeitgeist*, Potsdam: Verlag für Berlin-Brandenburg, 2000.

Dulfer, Jost, Martin, Bemd, Wollstein, Gunter, hrsg., *Deutschland in Europa*, Frankfurt/M./Berlin: Propyläen, 1990.

Foucault, Michel, “Of Other Spaces, Heterotopias.” *Architecture, Mouvement, Continuïte*, 5,1984, pp.46-49. (“Von Anderen Räumen”, *Schriften* 4, Frankfurt/M., pp.931-942.).

Gottschlich, Rudolf, *Der Stellenwert Japans und Chinas in Politischer Geographie und Geopolitik vor dem Hintergrund der Ostasienpolitik des Deutschen Reiches*, Frankfurt a.M: Neue Wissenschaft., 1998.

Hauer, Milan, *What is Asia to us? Russia’s Asian Heartland yesterday and today*, London: Routledge, 1992.

- Haushofer, Karl, “Die eigenart der japanischen Staatskultur von Dr. Hans
Überschaar. Eine Einführung”, *ZfG*, 2, 1925.
- Haushofer, Karl, “Ostasiatisches Kräftespiel”, K. Haushofer (ed.), *Probleme
der Weltpolitik in Wort und Bild*, Leipzig, 1939.
- Haushofer, Karl, *Bausteine zur Geopolitik*, Berlin, 1928, p.27.
- Haushofer, Karl, *Dai Nihon. Betrachtungen über Gross-Japans Wehrkraft,
Weltstellung und Zukunft*, Berlin, 1913.
- Haushofer, Karl, *Geopolitik der Pan-Ideen*, Berlin, 1931, p.56.
- Haushofer, Karl, *Kontinentablock. Mitteleuropa-Eurasien-Japan*, München, 1941.
- Lye, Colleen, *America's Asia: Racial Form and American Literatur 1893-1945*,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 Mackinder, Halford, “The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 *Geographical Journal*,
23, 1904, pp.421-437
- Mackinder, Halford, *Democratic Ideals and Reality*, London, 1919.
- Mahan, Alfred Thayer, *The Problem of Asia and its effect upon international
policies*, Boston, 1900.
- Maier, Charles S., “Consigning the 20th Century to History: Alternate
Narratives for the Modern Era”,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105, No. 3, 2000, pp.807~831.
- Meyer, Robert, *Europa zwischen Land und Meer*, Göttingen: V&R Unipress,
2014.
- Neumann, Franz, *Behemoth. Struktur und Praxis des Nationalsozialismus
1933-44*, Frankfurt/M., 1942/1993.
- Ratzel, Friedrich, *Erdenmacht und Völkerschicksal. Eine Auswahl aus seinem
Werk*, Stuttgart, 1940, (Karl Haushofer ed.).
- Ratzel, Friedrich, *Politische Geographie*, München, 1897, p.42.
- Roedenberg, Ernst, “Die politischen Mächte Chinas, Ausländische Mächte IV”,

- ZfG (Zeitschrift f. Geopolitik)*, 9, 1932, p.29.
- Sandner, Gerhard, “Deterministische Wurzeln und funktionaler Einsatz des ‘Geo’ in Geopolitik”, *WeltTrends*, 2,1994, 4, pp.8-20.
- Schlögel, Karl, *Im Räume lesen wir die Zeit. Über Zivilisationsgeschichte und Geopolitik*, Frankfurt/M., 2006.
- Schmitt, Carl, *Land und Meer*, Stuttgart, 1942
- Schmitt, Carl, *Staat, Grossraum, Nomos. Arbeiten aus den Jahren 1916-1969*, Berlin, 1995
- Schmitt, Carl, *Völkerrechtliche Grossraumordnung*, Berlin, 1941.
- Schmoeckel, Mathias, *Die Grossraumtheorie. Ein Beitrag zur Geschichte der Völkerrechtswissenschaft im Dritten Reich, insbesondere der Kriegszeit*, Berlin: Duncker & Humblot, 1994.
- Voigt, Rudiger (ed.), *Grossraum-Denken. Carl Schmitts Kategorie der Grossraumordnung*, Stuttgart, 2008
- Wegener, Georg, *Die geographischen Ursachen des Weltkrieges. Ein Beitrag zur Schuldfrage*, Berlin: Siegismund, 1920
- Weigert, Hans W. et al. eds., *New Compass of the World: A Symposium on Political Geography*, New York: Macmillan Company, 1944.

European Geopolitical Perceptions for East Asia between Two World Wars

Lee, Jinil*

Unlike the general prejudice, geopolitics is a phenomenon confined neither to Nazi Germany nor to Japanese militarism. In its beginning geopolitics was closely related with Friedrich Ratzel, a German geographer in the 19th century. He divides the earth with continental power and ocean power, and stressed the importance of geographical factors, that they have. Halford Mackinder, (1861-1947) and Alfred Mahan (1840-1914) took over the geographical theory of Ratzels. Paradoxically, after the Cold War ended, geopolitics faced a new renaissance than ever before.

Ultimately, the Western geopolitics of the early 20th century focused on how to control the Soviet Russia across Europe and Asia. Haushofer published a book *Kontinentalblock. Mitteleuropa-Eurasien-Japan* (München, 1941) with the idea to tie the Eurasian continent between Germany and Japan in the year that Second World War begins.

Geopolitics was used as an academic tool to explain the reality of political relations on the one hand and as an aggressive tools to lead this political action on the other hand. Nevertheless, geopolitics as a new discipline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factors like economy, population, and culture in a country, which shows its scantiness as an analytical tools.

* Center for East Asian History, Sungkyunkwan University

Key words: Eastasia, Geopolitik, Mackinder, Ratzel, Mahan,
Haushofer, Schmitt, Grossraum, Kontinentalblock,
Space

필자 E-Mail: jilee1995@hanmail.net

투고일: 2016년 4월 23일 / 심사완료일: 2016년 5월 4일 / 게재확정일: 2016년 5월 4일